

‘유럽 전기차 1위’ 르노 조에, 국내서 돌풍 이을까

출시 후 전세계서 21.6만대 판매
전기차 관련상만 60개 이상 받아
54.5kWh 용량 Z.E. 배터리 탑재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 309km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전기차의 인기는 식을 줄모르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전기차 보조금 혜택,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직면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앞으로도 가격 경쟁력, 충전 인프라 개선 등의 기대되며 전기차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완성차업체에서도 전기차라인업 확대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르노삼성자동차는 최근 유럽 누적 판매 1위 전기차인 르노 조에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 조에는 지난 2012년 유럽에 처음 선보인 이후 올해 6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1만



르노 전기차 조에.

6000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전기차다. 출시된 이후 유럽에서 단 한번도 판매율이 떨어진 적이 없다. 지금까지 전기차 관련 상만 60개 이상을 받았다. 지난 2017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연간 3만대 판매량을 넘겼으며, 지난해엔 4만 5129대가 유럽에서 팔렸다.

조에는 100kW급 최신 R245 모터를 장착해 최고출력 136마력과 최대토크 25kg·m의 힘을 뽐내며 정지 상태에서 50km/h까지 3.6초에, 100km/h까지 9.5초 만에 돌고른다. 조에는 54.5kWh 용량의 Z.E.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09km(WLTP 기준

395km)이다.

50kW급 DC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30분 충전으로 약 150km를 달릴 수 있다.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모터와 배터리 패키지가 최적화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낮은 무게중심과 이상적인 무게 배분을 이루며 다이내믹한 주행감과 핸들링을 제공한다.

모든 트림에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와 LED 안개등이 기본으로 적용됐다. LED 퓨어 비전은 할로겐램프보다 75% 향상된 밝기로 비취 어두운 길에서 안전한 주행을 보장한다.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는 동급 최초로 LED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가 장착되었다. 방향 지시등이 차 안에서 바깥으로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도록 고안해 시인성을 높였다.

인테리어에는 동급 최대의 10.25인치 TFT 클러스터와 센터페시아에 ‘이지 커넥트’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적용된 터치 방식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아울러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며 통신형 T맵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교통, 날씨, 가까운 충전소 위치, 이용 가능한 충전기 등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

어 레버 아래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여유롭다.

내장재에는 친환경 인테리어 소재가 적용됐다. ‘젠’ 트림과 ‘인텐스 에코’ 트림에는 도어 암레스트와 대시보드 그리고 시트 등에 업사이클 패브릭이 활용됐다. 이는 자동차 업계에서 전례 없는 혁신이며 전기차의 제조 과정에서도 CO₂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르노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 내장재는 부드러운 촉감과 탄성이 특징으로 전기차의 친환경적인 인테리어 개성을 잘 드러낸다.

이 외에도 강한 회생 제동을 걸어주어 ‘원 페달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해주는 ‘B-모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LDW), 주차 주향 보조 시스템(EPA), 오토매틱 하이빔(AHL), 7개의 스피커로 이뤄진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오토 오프닝&오토 클로징, Z.E. 보이스, 스티어링휠 열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등 다양한 운전 편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국내기업들과 원격근무 솔루션 연내 출시

마드라스체크·새하컴즈·틸론과
‘KT 디지털웍스’ 서비스 선보여

KT는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표 강소기업들과 힘을 합쳐 5G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술이 적용된 통합 기업용 원격근무 솔루션인 ‘KT 디지털웍스’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KT는 기업용 통합 비대면 업무 솔루션 ‘KT 디지털웍스’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국내 강소기업 마드라스체크, 새하컴즈, 틸론과 ‘KT 디지털웍스 사업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KT는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W) 툴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DX 플랫폼 ▲뛰어난 보안성과 함께 모바일 환경에서 대응량의 끊김 없는 연결성을 보장하는 기업 전용 5G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와 빅데이터 분석 엔진과 같은 KT AI 솔루션을 융합한다.

또 KT의 전문 인력들이 비대면 업무 방식으로서의 인식 개선과 원격 협업방식 가이드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까지 제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KT 기업부서 박운영 사장이 디지털웍스 화상회의의 솔루션을 통해 국내 강소기업 대표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KT

공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 컨설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마드라스체크는 비대면 협업툴을 담당한다. 대표 상품인 ‘플로우’는 국내 1300개 이상의 유로기업이 쓰는 대표 협업툴로, 가장 직관적인 UI·UX로 업무용 메신저와 프로젝트 업무관리를 통합 제공한다.

새하컴즈는 화상회의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공공·금융·기업 등 국내 최대 1200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 품질과 노하우가 보장돼 있다. 중대형 고객 기반의 온프레미스(기업내 설치형) 사업 경험을 토대로, KT 클라우드 기반의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형 화상회의의 서

비스의 중견·중소기업 시장 확대 준비를 마쳤다

틸론은 클라우드 가상화 솔루션을 맡는다. KT와 함께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우정본부 등에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PC(DaaS) 솔루션을 다수 제공한 역량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원격 근무에서 보안성과 안정성을 중요시 하는 공공·기업고객 대상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KT는 이번 협력을 통해 KT 디지털웍스를 연내 출시하고, 수요기업의 규모와 이용실태 등 사업장 환경에 맞도록 빠르게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윤정 시전문 기자 echo@

현대차-인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협약 지능형 버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

현대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해 이용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차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교통, 환경, 안전 등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대차는 올해 초 인천시, 현대모토에버, 씨엘, 연세대학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인천e음’ 시범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현대카드, 블루윙넷, 이비카드, KST모빌리티 등 추가로 합류한 컨소시엄 기업들과 함께 올해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부터 2개월간 수요응답형 버스인 ‘아이-모드(I-MOD)’와 전용 키보드 공유 서비스인 ‘아이-제트(I-ZET)’를 영종국제도시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인천e음 사업을 추

진했다.

I-MOD는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실시간 탐색해 배차하는 서비스다. 기존 버스는 승객이 없어도 정해진 노선에 따라 정류장마다 정차하지만 I-MOD는 승객 위치와 목적에 맞춰 멈춤 정류장을 정한다.

I-ZET은 교통이 혼잡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다.

현대차 컨소시엄은 여기에 지역상권과 연계한 위치 기반 맞춤형 콘텐츠와 I-ZET 배터리 교체형 스테이션 등을 추가 적용해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영종국제도시뿐 아니라 송도 국제도시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차 컨소시엄은 시범사업 기간 I-MOD 8대, I-ZET 45대를 운영했으며 이번 사업 기간에는 I-MOD 최대 20대, I-ZET 300대까지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I-MOD와 I-ZET를 전철과 버스뿐 아니라 택시 합승 서비스인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와 연계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양성운 기자

쌍용양회 가상현실 안전체험시스템 도입

안전한 사업장 실현 기대

쌍용양회는 안전한 사업장 실현을 위해 생산공장에 가상현실 안전체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쌍용양회 노사가 함께 국내 시멘트업계 최초로 도입한 가상현실 안전체험시

스템은 크고 작은 설비가 쉽없이 이동되는 생산현장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끼임, 추락, 전도, 화재 등의 다양한 안전사고 상황을 작업자가 가상현실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안전의식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호 기자 bada@

지금까지의 안전교육은 대부분 과거의 사고 사례를 분석한 프리젠테이션이나 동영상 시청 등 수동적으로 진행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이고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가상현실 안전체험시스템의 도입으로 쌍용양회는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가운데 왼쪽)과 지영조 현대차 사장(가운데 오른쪽) 등 현대차 컨소시엄 참여단체 대표들이 지난 9일 진행된 언택트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